

★ EBS연계 중요 작품(김광균) ★

(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광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폴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 부속하기}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들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선경 후평

(나)
 담쟁이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업혀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가 푸른 하늘에 놀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들쭉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멩이 위에 없힌다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
 23강공명 깨기

43.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은 (나)에 대한 <학습 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하늘과 돌멩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 각 연의 서술어에 주목하여,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여 탐구해 보자.

	사물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서술어	새로운 관점
1연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란다.	업혀	㉠
2연	새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놀려	㉡
3연	들쭉레	들쭉레의 꽃이 떨어진다.	버리며	㉢
4연	하늘	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없힌다	㉣
5연	모래	모래가 바위 밑에 깔려 있다.	들어올려	㉤

- ㉠ ㉠: '업혀'에 주목하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로 볼 수 있다.
- ㉡ ㉡: '놀려'에 주목하면, 새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게를 견디며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 '버리며'에 주목하면, 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쭉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 '없힌다'에 주목하면, 하늘은 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길에 가깝게 내려와 돌멩이 위에 닿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 ㉤: '들어올려'에 주목하면,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45.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낙엽'을 '망명정부의 지폐'에 연결하여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들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고독한 반원'으로 표현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빈자리'를 '들쭉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여 비어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
- ④ (가)는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나)는 '길 밖'과 '길 한켠'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는 '허공'을 '황량한 생각'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고, (나)는 '담쟁이덩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허공'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군.